

(제3편) 미국 쇠고기 산업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¹⁾

(원문) 藤原琢也(후지하라 타쿠야, ALIC 조사정보부)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련****

1. 머릿말

2018년 미국의 육용우부문(쇠고기 포함) 판매액은 670억 미국 달러(7조 350억 엔, 72조 8,290억 원)로, 미국 농축산물 판매액의 18.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그림 1). 또 미국은 세계적인 쇠고기 생산량과 소비량 부문에서 1위이자 브라질, 호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출국이며, 동시에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입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의 동향이 세계 쇠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2020년 봄 이후 미국에서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발생·확산되어 지금도 미국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쇠고기 산업에서도 도축장 가동 중단과 생산량 감소, 외식 수요 급감, 쇠고기 도매가격 등락이 발생하였다. 이후 미국 농무부(USDA) 등의 각종 지원책과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수급 격차가 줄어들고, 생산, 물류, 소비 현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미국 쇠고기산업에서 지금까지의 COVID-19의 영향에 대해 최근의 육용우 및 쇠고기 수급동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 중의 환율은 1 미국 달러=105엔=1,087원(2020년 12월 말일 TTS 시세: 104.5엔, 1,086.5원)을 사용하였다.

1) 이 글은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藤原琢也, ‘米国の牛肉産業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について’, [特集: 海外の食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2021年 2月号의 내용을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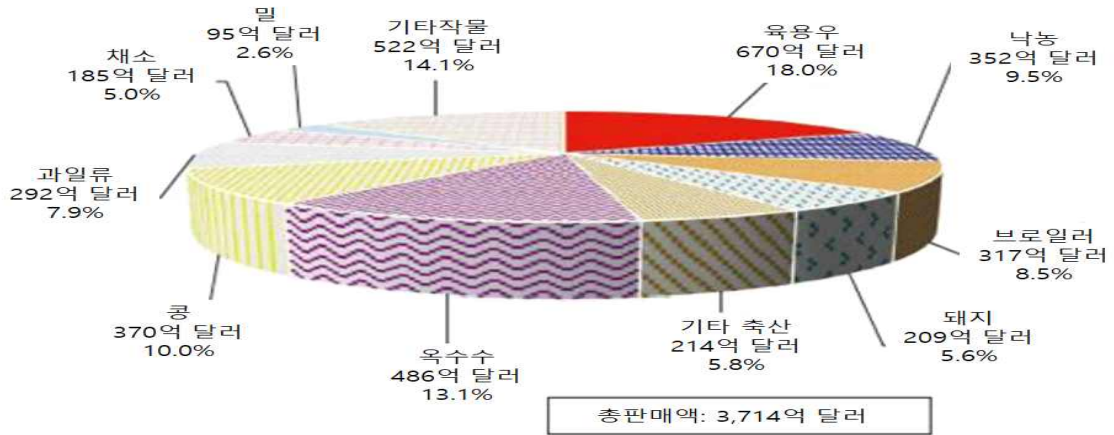
*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 김종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박지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세계 축산 담당자)

****김태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그림 1> 농축산물 판매액(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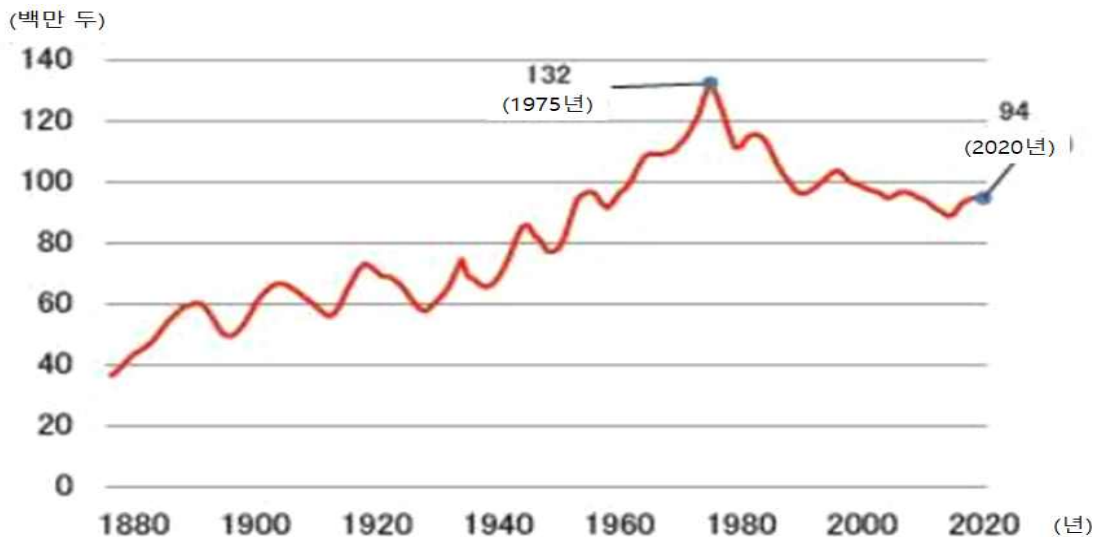
자료: USDA [Farm Income and Wealth Statistics]

2. 육용우 생산 현황

2.1. 소 사육 두수 추이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8~12년 간격으로 소 사육 마릿수가 증감하는 이른바 캐틀 사이클(cattle cycle)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초장기 추세를 보면, 1975년 과거 최고인 1억 3,228만 마리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2> 소 사육마릿수 추이



주: 각 년도 1월 1일 기준
 자료: USDA, 「Cattle」

2011~12년에는 중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 그 영향으로 초지 상태가 악화되어 육용 번식암소(경산우, 經産牛)를 중심으로 도태가 진행된 결과, 2014년에는 1960년대와 같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2015년 이후에는 초지 상태가 개선되면서 우군(牛群) 재구축이 진전되어, 2019년까지 5년 연속 증가하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9,441만 마리로 6년 만에 전년 대비 밀돌았다.

2.2. 최근의 종류별 소 사육 마릿수 추이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19년까지 5년 연속 증가하던 소 사육 마릿수는 2020년에는 6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으며, 캐틀 사이클에서의 소 마릿수 증가 경향이 종료될 징조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소 사육두수를 보면, 번식 암소(경산우, 經産牛)는 육용우(육우), 유용우(젖소) 모두 전년을 밀돌았다. 그 결과, 총 소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4,065만 마리가 되었다(표 1). 미경산우에 대해서는, ‘기타(피드롯(feedlot²⁾) 등에서 비육되고 있는 소’는 전년을 웃돌았지만, 육용·유용 번식 후계우가 모두 전년을 밀둔 결과, 동 0.5% 감소한 2,011만 마리가 되었다.

〈표 1〉 종류별 소 사육두수 추이

(단위: 천 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율
총사육두수	91,888	93,625	94,298	94,805	94,413	- 0.4%
번식암소(경산우)	39,476	40,539	40,898	41,044	40,651	- 1.0%
육용우	30,164	31,171	31,466	31,691	31,317	- 1.2%
유용우	9,312	9,369	9,432	9,353	9,335	- 0.2%
미경산우 ¹⁾	19,907	20,132	20,218	20,210	20,114	- 0.5%
육용번식후보우	6,335	6,363	6,108	5,885	5,772	- 1.9%
유용번식후보우	4,814	7,754	4,768	4,702	4,637	- 1.4%
기타	8,753	8,995	9,432	9,624	9,706	0.9%
거세우 ¹⁾	16,305	16,374	16,528	16,758	16,671	- 0.5%
중용우(씨숫소) ¹⁾	2,317	2,244	2,252	2,253	2,237	-0.7%
송아지 ²⁾	14,067	14,356	14,401	14,540	14,739	1.4%

주 1: 표 중 1)은 500파운드(약 227kg) 이상, 2)는 500파운드 미만

2: 각년도 1월 1일 현재

자료: USDA, 「Cattle」

2) 비육장(feedlot, 肥育場). 울타리를 치고 주로 농후사료를 급여하여 가축, 특히 소를 비육시키는 노천사육장. 육우비육장.(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search.naver.com/>)

2020년 상반기(1~6월) 성우 도축두수에서 차지하는 암소의 비율은 전년 동기대비 1%포인트 증가한 49.5%였다(USDA 「Livestock Slaughter」). 일반적으로 암소 비율이 47%를 넘으면 번식 암소 마릿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캐틀 사이클에서의 우군 확대 경향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번식 암소(후보우) 감소로 인해 향후 쇠고기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 아울러 캐틀 사이클은 기존 8~12년에서 최근에는 5년 정도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3. COVID-19 발생 상황, 정부에 의한 대책

3.1. 미국에서의 COVID-19 발생 상황

미국에서는 2020년 1월 처음으로 COVID-19가 확인되었고, 3월 이후 감염자가 급증하였다. 3월 1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3월 27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안보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에 의해 총 2조 2,000억 달러(231조 엔, 2,391조 4,000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 경제대책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에 대한 현금지급이나 실업보험 추가지급, 중소기업대출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또한 각 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40개 주 이상에서 자택대기령이 발령되었다.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음식점 내 식사 금지, 집회 금지, 학교 폐쇄 등이 단행되었고, 식료품 가게와 경찰소방 등 시민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업종(essential worker) 외에는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등 경제활동이 크게 제한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쇠고기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3.2. COVID-19가 쇠고기 산업에 미친 영향

3월 중순 이후, 식육처리장(이하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사이에서 COVID-19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의 결근에 따른 노동력 부족, 작업장 소독과 감염방지대책 도입 등의 이유로 처리장 일시 폐쇄, 생산라인 축소 등과 같은 영향을 받았다.

미국 쇠고기업계는 도축 마릿수의 약 70%를 4대 패커³⁾(JBS USA 사, 타이슨푸드 사, 카길 사, 내셔널비프 사)가 차지하는 과점상태에 있다. 하지만, 4대 패커 모두에서 처리장 일시 폐쇄 또는 조업정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4~5월에 걸쳐 도축·

3) packer, 가축의 도축해체부터 소매단계까지의 유통 담당업체. 미트패커란 비육우 등 가축의 도축해체, 커트(cut)처리, 햄·소시지 등의 가공 및 본래의 업무인 지육·부분육(cut meat) 그리고 햄·소시지, 다짐육(햄버거용 등)을 박스드비프(boxed beef)로 슈퍼마켓이나 소매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 배송하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출처, 木村勝紀 著, 1999, 「アメリカ 肉牛・牛肉産業と日本の畜産」, (株)オールインワン出版部, p.329)

가공 처리 능력은 일시적으로 40% 정도가 되는 등 현저하게 저하되어,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처리장에서의 도축두수 감소가 쇠고기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큰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출하할 수 없는 육용우가 피드롯에 체류되고,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식품 사재기에 의한 수요 급증으로 식료품점 재고 부족과 가격 급등을 초래하였다.

여기에 당시 소비자 식비 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외식 수요가 사라진 것도 이러한 추세를 부추겼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주로 스테이크나 햄버거로서 소비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크게 받아, 4~5월에 걸쳐 컷아웃 밸류(cut-out value⁴)가 크게 변동하였다. 물류면을 포함한 쇠고기 공급체제가 COVID-19의 확대라는 예측 곤란한 상황에 완전히 대처하기에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3.3. 연방정부, 업계단체에 의한 대책

USDA는 4월 17일 COVID-19의 영향을 받은 생산자,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190억 미국달러(1조 9,950억 엔, 20조 6,530억 원)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식량지원프로그램(CFAP)을 공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안보법(CARES Act)과 상품신용공사(CCC⁵) 현장법 등을 재원으로 생산자 보상과 식품 구매 배급 프로그램을 골자로 하는 지원책이다.

이어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생산법(DPA⁶)이 규정하는 대상 산업에 도축장을 추가하고, 도축장을 계속 운영하라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퍼듀 USDA 농무부장관은 5월 5일 전 미국 각 주지사 및 대형 정육기업 경영진에게 서한을 발송하였다.

처리장 종업원에게 COVID-19가 확인되었을 때의 대응이 주나 지역에 따라 달라, 몇몇 주에서는 소규모 감염에 의해서도 처리장의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질병대책예방센터(CDC⁷)나 노동부의 노동안전위생청

4) 각 부분육의 도매가격을 1마리분의 지육으로 재구성한 도매지표가격.

5) 미국상품금융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 1933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농산물 가격지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립된 미국정부기관이다. 농무장관이 통할하며 농산물을 담보로 농민에게 일정가격(지지가격)으로 융자한다든가 농민이 희망하면 그대로 사들이는 일 외에 가지고 있는 잉여농산물의 매각, 잉여농산물과의 바터로 전략물질의 매수도 이루어진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6) ‘국방물자생산법’이라고도 한다. 국방(물자)생산법(國防(物資)生産法,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시기인 1950년 9월 8일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법이다. 이 법의 제정은 미국이 냉전 당시에 실시한 전쟁 동원령 관련 정책 중 하나로,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가 산업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다. 이에 의해 국가에 필요한 것을 민간기업에 제조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생산법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 국방생산법 발동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사태 때 용인되는 특별권한을 행사해 코로나19 치료에 불가결한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등의 확보를 서두를 수 있게 됐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지니어링연구소, <https://terms.naver.com/>)

7)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감염병을 연구하는 미국의 전문기관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의학·간호 약어해설사전, 2016. 5. 1., 임상약어연구회, 민순, 이현수, 윤형윤, 정은서, <https://terms.naver.com/>)

(OSHA⁸⁾)이 정한 감염방지대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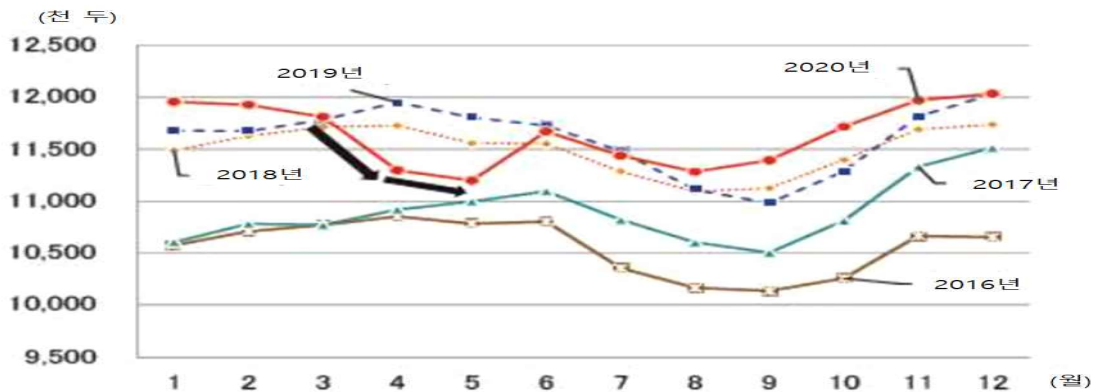
대통령령의 효과와 처리장이 토요일 가동을 늘리면서, 6월 초순에는 처리장 처리 능력이 전년 동기 대비 95% 이상까지 회복되어, 식육 생산량 전망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 후, 처리장 종업원 중에서 COVID-19는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지만, 4, 5월과 같은 생산량의 감소는 보이지 않고, 6월 이후 예년 수준의 생산체제가 확보되고 있다.

4. 주요 통계로 보는 COVID-19의 영향

4.1. 피드룻 사육 두수

피드룻 사육두수는 예년 여름철에 감소한 후 가을 이후에나 회복되는 계절성이 있다. 또한 2018년 이후 견고한 비육우 가격을 배경으로 피드룻의 수익성이 양호하였기 때문에, 송아지 도입 의욕이 높아지면서, 2020년 3월까지 사육두수는 기록적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그림 3).

<그림 3> 피드룻 사육두수 추이



주 1: 1000두 이상 규모의 피드룻이 대상

2: 각 월 1일 시점

자료: USDA, 「Cattle on Feed」

하지만, 같은 해 4, 5월에는 COVID-19의 확대에 따른 처리장 폐쇄나 도축능력 저

8)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1970년에 미 연방 정부는 직업 안전 및 보건 법령(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함으로써 산업체들이 특정한 안전 기준을 부과하는 행동을 취하였다. 이 법령에 의해 정부 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이 기관은 미국 노동성 산하의 직업안전 위생국(OSHA)이다. OSHA는 안전 프로그램들의 실시,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들에 대한 새로운 설정과 기존의 잘못된 기준들을 폐기, 기업체 감찰,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사, 질병 및 상해의 발생 비율에 대한 계속적 감시, 소환장 발부, 벌과금(罰科金)의 산정,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 적합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법원에의 청원, 안전 훈련의 제공, 상해방지 컨설팅 제공, 위생 및 안전에 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OSHA는 일반 산업체뿐만 아니라 건설, 농업, 해양 부분과 같은 특수한 산업체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발간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최상복, <https://terms.naver.com/>)

하로 출하 적기를 맞은 비육우가 출하할 수 없게 되면서, 비육기간 장기화에 따른 체중 증가, 프라임 등 상위 육질등급 발생률이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통상적으로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피드롯 경영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쇠고기 시장이 혼란스러워진 점(후술)과 비육우 가격이 침체된 점(그림 4) 등으로 인해, 피드롯에 대한 소 도입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예년 같으면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과 5월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5%, 5.1%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그림 3의 검은 화살표 부분).

그 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던 도축두수가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비육우 가격이 안정적으로 회복되어 피드롯 도입두수도 증가세로 돌아서, 2020년 8월 이후에는 다시 전년도 근접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그림 4> 비육우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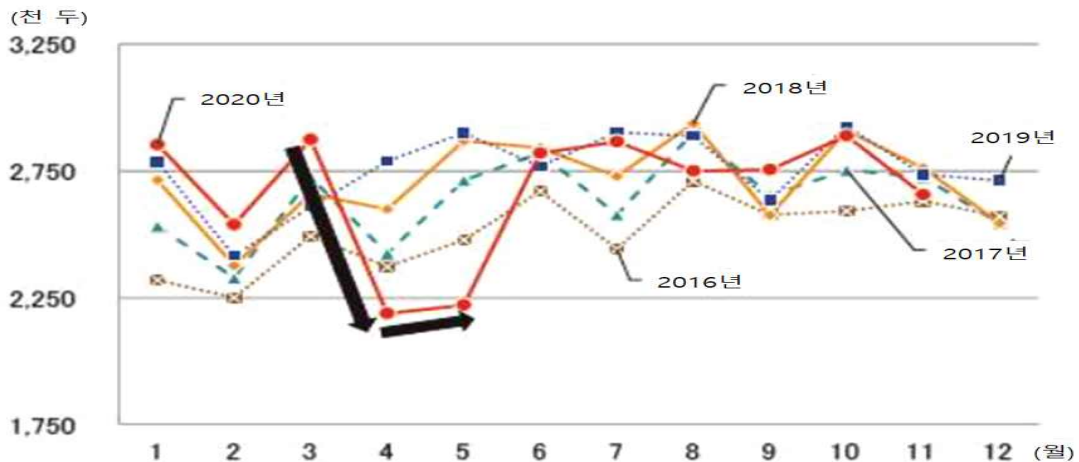
주: 네브라스카의 상대거래가격, 초이스급, 거세
 자료: USDA, 「Livestock & Meat Domestic Data」

4.2. 도축 두수

소 도축두수는 피드롯 사육두수와 마찬가지로 계절성을 가지며, 예년 여름철 수요기에 증가한 후 가을 이후에 감소한다. 그러다 2월 쇠고기 소비가 침체되는 시기에 바닥을 치고, 다시 여름철 성수기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동향을 보면, 캐틀 사이클 확대,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2016년 이후에는 4년 연속으로 전년을 웃돌고 있으며, 2020년에도 3월까지 증가 추세에 있었다(그림 5).

<그림 5> 소 도축두수 추이



주: 연방검사 베이스
 자료: USDA, 「Livestock Slaughter」

하지만, 같은 해 4월과 5월에 걸쳐 COVID-19가 확대됨에 따라 4대 패커를 포함한 많은 처리장에서 종업원의 감염으로 잇따라 처리장이 일시 폐쇄되었으며, 종업원이 감염되지 않은 처리장에서도 소독세척 등 단기간의 조업정지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4~5월에 걸친 도축·가공 처리능력이 저하되었다. 그 결과, 도축두수도 4월 전년 동월 대비 21.5%, 5월 전년 동월 대비 23.4% 감소하는 등, 전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그림 5의 검은 화살표 부분).

그 후,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처리장 조업 지속을 명하는 대통령령이 서명되어 CDC/OSHA가 정한 감염방지 대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형태로 조업 지속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책이 실시되는 가운데 패커에서도 청소·소독 빈도 증가, 충분한 환기, 사회적 거리 확보, 마스크 페이스 실드 등 방호구 도입, 가공 라인에의 파티션 설치 등 종업원의 안전 확보 대책이 이루어졌다. 또한 폐쇄되어 있지 않은 처리장에서도 할증임금을 지불하고 토요일 가동을 증가시키거나 주야간 교대제인 시프트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가동을 향상을 도모하여, 쇠고기 안정공급을 지향한 도축능력 증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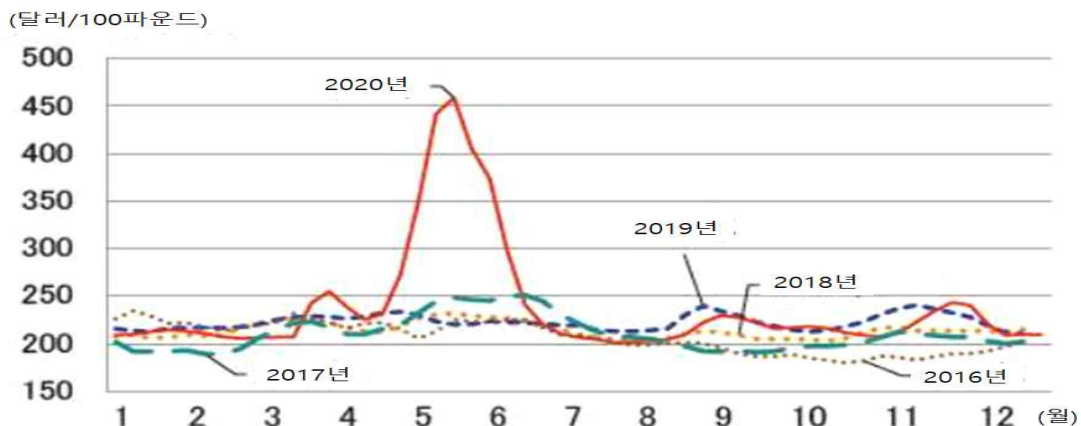
이러한 정부, 업계 관계자가 하나가 된 대책이 주효한 결과, 6월 초순에는 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전년 동기 대비 95% 이상까지 올라왔다. 이에 도축두수는 회복되었지만, 쇠고기 제품 기준으로 보면, 수급 균형에 다소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4.3. 쇠고기 도매가격(컷아웃 벨류)

쇠고기 도매가격(컷아웃 벨류)은 매년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상승하다가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절정을 이루는 추세를 보여 왔다. 또, 최근에는 소 도축두수,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호경기에 의지한 국내 수요나 세계적인 쇠고기 수요 고조에 따른 수출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양호하고 안정된 추이를 보였

다(그림 6).

〈그림 6〉 쇠고기 도매가격 추이(주별 평균 가격)



주: 초이스급, 600-900파운드 컷아웃 벨류.

자료: USDA, 「National Weekly Boxed Beef Cutout and Boxed Beef Cuts」

그러나 2020년 3월 중순에 전미 각지에서 실시된 도시 봉쇄와 외출 제한 실시에 따른 소매 특수에 의해 유통 재고가 격감하고, 그 보충 매수로 컷아웃 벨류는 100 파운드당 250 달러 초과(kg당 579엔, 5,994원) 수준까지 급등하였다.

그 후, 레스토랑의 일제 휴업 등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컷아웃 벨류는 이례적으로 하락하였지만, 4월 중순 이후, 상술한 바와 같이, 처리장 휴업과 조업정지에 의해 도축두수가 감소하여 새로운 조업정지 보도도 다시 나왔기 때문에, 수급 밸런스가 무너져 또다시 이례적인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5월 들어 도축두수 감소가 계속되었다. 시중에 공급되는 쇠고기의 절대량이 부족한 가운데, 여름시장 수요기를 채우지 못한 소매체인이나 외식산업 간 제한된 쇠고기를 경쟁적으로 확보하려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당연히 컷아웃 벨류는 이례적으로 급등세(현지 보도에 의하면, 매일 상승이 아닌 매 시간 상승이라고 한다)를 보여, 5월 중순에는 동 450 달러 이상(1kg당 1,042엔, 10,787원)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처리장 조업 계속을 명하는 대통령령이나 통일적인 감염 방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도축·가공의 지속적인 확보가 도모되게 되었다.

이러한 대책이 이루어진 결과, 처리장이 순차적으로 조업을 계속하고, 도축두수, 쇠고기 생산량도 회복 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전 미국 각지에서 경제 활동이 서서히 재개되면서, 수요측면에서의 혼란도 한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6월에 들어서자 쇠고기 공급량이 회복되는 가운데, 퍼듀 농무부 장관이 발표를 하였고, 6월 9일 아침 시점에서 소, 돼지, 브로일러의 처리 능력은 모두 전년 같은 시기의 95% 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정보가 시장에 공유되었다. 여기에 쇠고기 생산은 예상보다 빠른 회복 조짐 등의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심리적 지지 덕분에, 컷

아웃 밸류는 6월 중순 이후 안정되어 예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4.4. 쇠고기 수출량

미국의 쇠고기는 주로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나 인접국이자 무역협정 체결국⁹⁾인 캐나다, 멕시코로 수출되어 왔다(표 2). 최근에는 미국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쇠고기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쇠고기 수출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8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9년에도 전년에 이어 역대 제2위의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수출지별 쇠고기 수출량 추이

(단위: 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1-10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일본	297,285	374,668	401,684	362,523	317,070	3.6%
한국	208,290	214,426	289,406	310,162	256,850	- 1.8%
캐나다	139,640	140,043	135,987	121,558	109,485	8.2%
멕시코	179,147	190,214	203,542	192,529	101,699	- 37.9%
홍콩	133,271	152,290	139,030	105,207	77,894	- 2.3%
대만	62,088	62,509	83,982	89,740	76,129	1.7%
중국	0	4,255	9,976	14,559	31,158	193.4%(약 2.9배)
기타	140,105	158,565	169,528	176,398	115,097	- 22.4%
합계	1,159,826	1,296,968	1,433,135	1,372,677	1,085,382	- 5.3%

주: 지육중량 베이스

자료: USDA, 「Livestock and Meat International Trade Data」

2020년 1~3월에는 전년을 웃도는 호조 상태로 시작 되었지만, 4월 이후에는 8월과 10월을 제외하고는 전년을 밑돌았다. 특히 5월과 6월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9)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는 1994년 1월 1일에 발효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쇠고기 관세는 무세로 무역되고 있었다. 이후 2020년 7월 1일 NAFTA의 후속조치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었지만, 쇠고기 관세는 무세 그대로 바뀌지 않았다.

30.9% 감소, 33.0% 감소 등 대폭 감소하였다. 그 결과, 1년 기간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108만 5,382톤이 되었다.

5월과 6월의 감소는 COVID-19의 확대에 따른 처리장 조업 정지 및 처리능력 저하에 따라 도축두수·쇠고기 생산량이 감소하였다는 점과, 그 영향에 의한 쇠고기 도매가격 상승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이 요인이다.

COVID-19의 영향에 대하여 미국식육수출연합회(USMEF¹⁰)는 “미국의 식육산업이 직면한 곤란을 고려한다면, 4~5월의 수출량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다” 고 한다. 또한, “도축 가공처리 수송이 지연되면서 멕시코 등 중남미 시장에서는 외출 제한과 자국 통화 약세 등 환율 침체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주춤하였다. 이는 COVID-19가 특히 멕시코와 중남미 등에서 역풍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수요가 꾸준하였다” 고 덧붙였다.

더욱이, COVID-19는 특히 멕시코나 중남미 수출 등에서 계속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많은 아시아 시장에서, 레스토랑의 내객수(來客數)나 푸드 서비스 영업은 통상 상태로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특히 8, 9월에 있어 한국, 대만,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층이 넓어 향후 수출이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경쟁상대인 호주산 쇠고기의 공급이 (가뭄에 따른 우군 재구축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는 아시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를 얻고 있다.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시아의 쇠고기 수요는 관광 여행자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는 현 기세를 유지했으면 한다” 라고 하며, “COVID-19의 영향 속에서도 기록적 수출 페이스가 이어져 한국,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의 기대감을 표명” 하고 있다.

주요 수출지별 수출 물량에 대한 USMEF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많은 대 일본 수출은 캐나다 등 CPTPP(환 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인 협정) 회원국과 비교하여 관세 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2019년에는 감소하였지만, 미·일 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2020년 1월 1일부터는 관세가 인하되어 그 해는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10)USMEF는 육류 및 축산업에서 가장 다양한 무역협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USMEF는 쇠고기/야채 생산자 및 사료 생산자, 돼지고기 생산자와 사료 공급자, 양고기 생산자와 사료 공급자, 포장자와 처리자, 공급자와 거래자, 기름종자 생산자, 사료 생산자, 농장 단체 및 공급 및 서비스 기관을 대표한다. USMEF의 임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역동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수출시장에서 제품 수요를 높여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산업의 가치와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USMEF는 “미국의 육류를 세계의 식탁에 올려놓는 것”이다. 멤버에 본사를 둔 USMEF는 서울, 도쿄, 홍콩, 베이징, 상하이, 선양, 싱가포르, 타이베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멕시코시티, 몬테레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USMEF에는 남미, 중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카리브해를 아우르는 특별 시장 대표들도 있다. USMEF는 80여 개국에서 시장 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영역에 속한다. ●마케팅 - 프로모션, 무역 세미나, 소비자 교육, 광고 및 홍보를 통해 미국 육류에 대한 국제 시장의 수요를 창출한다. USMEF는 회원 회비, 민간 기부금 및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옥수수, 수수, 콩 체크아웃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또한 USMEF는 미국 농무부와 협력자로서 마켓 액세스, 신흥시장, 해외시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다.(출처: USMEF 홈페이지, www.usmef.org)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감축이 진전되고 있어 증가 경향에 있다. 2020년에는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19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대만 수출용은 4년 연속 역대 최고를 갱신한 2019년을 웃도는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만 국내 냉장육 수입에서 차지하는 미국산의 점유율은 75%로, 독점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용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감소한 돼지고기에 대한 대체수요에 의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수요는 얼마 되지 않지만, 2020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2.5배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미국 도축장의 가동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복잡한 가공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중국시장의 우위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미·중 경제무역협정 1단계 합의로 미국의 수출인정시설 수도 증가하면서, 향후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멕시코 수출의 경우, COVID-19로 인해 멕시코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멕시코 폐소 환율이 싸졌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가 상대적으로 고가가 되었다는 점을 감소의 요인으로 들고 있다.

5. 맺음말

2020년 봄 이후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 확산되어 사회 경제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쇠고기 산업에서도 도축장 가동정지, 생산량 감소, 외식 수요 급감과 같은 수급 격차와 쇠고기 도매가격 급등락 같은 시장 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부와 인력의 대책, 각종 지원책,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생산 물류 소비 현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미국의 쇠고기 산업에서는 작년 봄의 일시적인 생산량의 격감, 외식산업으로부터 소매산업으로의 급격한 수급 시프트, 도매가격 변동 등과 같은 곤란에 직면하였다. 그러면서, 정부·업계 관계자가 하나가 되어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반년간이라고 하는 단기간에 시장을 회복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COVID-19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주목을 끈 대통령 선거를 거쳐 2021년 1월에 출범한 바이든 신정부는 최우선 사항으로서 코로나 대책을 내걸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지역에서는 레스토랑의 점내 음식 제한·해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테이크아웃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소매에서 온라인 판매로 소비형태의 변화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쇠고기 산업은 번식 농가, 육성 농가, 피드롯(비육 농가)과 같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도축·가공업자, 물류업자, 소매·외식·전문점, 수출입업자 등 매우 저변이 넓

은 산업이다. 따라서, 전술한 혼란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도 다수에 이른다. 게다가 쇠고기는 스테이크나 햄버거 등 미국 국민에게 있어서 기본 식재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균형과 시장의 안정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앞으로 COVID-19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상하기 어렵지만, 미국 쇠고기 산업이 이번 경험을 근거로 하여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도 주시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木村勝紀 著, 1999, 「アメリカ 肉牛・牛肉産業と日本の畜産」, (株)オールインワン出版部
農畜産業振興機構 調査情報部 藤原琢也, ‘米国の牛肉産業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
感染症の影響について’, [特集: 海外の食肉需給の動向について~新型コ
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踏まえて~], 「畜産の情報」2021年 2月号
農畜産業振興機構, 『畜産の情報』2020年11月号,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よる米
国畜産業界への影響」(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381.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米国農務省、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対する農業
支援策を発表(米国)」(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5.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米国農務省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ている生産者
への支援策の詳細を発表(米国)」(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09.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農務省はコロナウイルス食料支援プログラムの対象農
作物を追加(米国)」(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62.html)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トランプ大統領、食肉・食鳥処理場の操業継続を命じ
る大統領令を発出(米国)」(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1.html)
· ·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農務省がコロナウイルス食料支援プログラムの第2
弾を公表(米国)」(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7.html)

USDA, 「Farm Income and Wealth Statistics」

USDA, 「Cattle」

USDA, 「Livestock Slaughter」.

USDA, 「Cattle on Feed」

USDA, 「Livestock & Meat Domestic Data」

USDA, 「National Weekly Boxed Beef Cutout and Boxed Beef Cuts」

USDA, 「Livestock and Meat International Trade Data」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search.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최상복,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의학·간호 약어해설사전, 2016. 5. 1., 임상약어연구회, 민순, 이현
수, 윤형윤, 정은서, <https://terms.naver.com/>)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USMEF 홈페이지, www.usmef.org